

칼빈과 한국장로교회의 학파별 예정론에 대한 비교연구

조 봉 근 (광신대학교 명예교수)

한글초록

사실, 예정론은 우리에게 3가지 이상의 유익을 준다. 그 유익은 모두 예정론을 성경적으로 믿을 때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인데,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가 원하신 바를 친히 그의 영원한 작정으로 말미암아 결정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God’s Eternal Decree)을 가리켜 예정이라고 말한다.” 이 예정론은 우주 모든 만물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참된 ‘겸손’을 가지게 하며, 만물을 맹목적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한다. 예정론이 주는 교훈은 만물의 창조와 종말까지 이른다. 즉, 예정론이 포함하고 있는 인식의 범위는 태초(영원)와 종말까지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예정이 포함하고 있는 범위와 그 유익이 부분적일 수 있는가? 실제로, 예정론이 주는 교훈은 과연 광범위하다. 또, 그 영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영향을 주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가 만물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알게 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확실한 소망을 준다. 그리고 또 그 지식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만물의 근원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영적 은혜의 근원을 지니신 왕적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모든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자신이 제사장 되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적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의 실수와 우연도 없이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이 세상에 선포하신 소망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더욱이

세상의 모든 근원이 창조주 아버지이시고, 모든 성경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므로, 요컨대, 예정론이 주는 그 영향은 모든 교리에 퍼져 있는 것이다.

주제어: 예정론, 존 칼빈, 칼 바르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한국장로교회의 학파들.

1. 들어가는 말

칼빈의 예정론은 『기독교 강요』 최종판 제3권(제21장-제24장)에 불과 4장을 차지할 뿐이었지만, 그 어떤 다른 교리보다도 칼빈신학에 있어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칼빈은 왜 이 교리에 그토록 많은 논쟁을 소모하였고, 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가 예정론을 중요시했다는 증거는 이 예정론의 문제로 로마 가톨릭교회뿐만 아니라 같은 종교개혁자인 멜란히톤, 불링거까지도 그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다.¹ 칼빈은 왜 자신도 그 하나님의 신비를 측량하지 못한다고 자인할 정도로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예정교리를 그렇게 열렬히 주장했는가? 칼빈은 예정론의 위치를 『기독교 강요』 초판과 제네바 요리문답서에서 다루었던 위치와는 다르게 왜, 『기독교 강요』 최종판 제3권 구원론에서 예정론을 끝끝내 다루게 되었는가? 그리고 결국 뒷부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는가?²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귀결되는 궁극적인 대답은 바로 다음의 결론일 것이다. 즉, “칼빈의 예정론”은 칼빈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높이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토록 많은 논쟁과 대적자들을 유발하면서도 우

1 최윤배, “논의 중에 있는 칼빈의 예정론,” 『현대와 신학』 제25집 (서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04), 330-331.

2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원광연 역, 『기독교 강요』 (경기고양: 크리스찬 다 이제스트, 2003), 11.

리에게 성경적인 요리와 여러 가지 영적 유익을 분명히 준다는 점이다. 이 점을 연구자는 다음부터 논하는 본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먼저 한국장로교회의 5대 학파(박형룡, 이종성, 김재준, 박윤선, 김영한)에 속한 학자들의 견해들을 서로 비교해 보려고 한다.

2. 존 칼빈의 예정론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의 제21장부터 제24장에서, 그의 예정론을 피력한다. 제21장에서, “예정교리의 서론적 논의”로서, “영원한 선택: 하나님은 이로써 어떤 이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또 어떤 이들은 멸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음”에 대하여, “예정교리의 중요성과 위험요소, 예정교리는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탐구해야 함, 예정교리에 대한 침묵은 부당함, 예정교리가 위험하다는 논리에 대한 논박”을 다루고, 이어서 “예정교리에 대한 해설”로서, “예지와 예정 및 이스라엘의 선택,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선택, 개개인의 선택”에서 선택교리를 요약하여 정리한다. 제22장에서, “선택은 공로에 대한 예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근거함”으로서, “성경적 증거들을 통하여 선택교리를 확증함”에 대하여, 6가지(하나님의 선택은 공로와는 관계가 없음, 선택이 창세전에 이루어졌음, 거룩함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임, 로마서 9장의 증거,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증거, 야곱의 선택의 영적인 성격)로 다루고, 이어서 “선택의 근거에 대한 반론들”을 5가지³⁾로 반박하였다. 제23장에서, “유기는 선택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하나님께서 그의 뜻으로 행하심”으로 “이 교리를 항상 공격해온 거짓된 비방들에 대한 반박”에 대하여, 14가지⁴⁾를 다루고, 제24장에서, “선택은

3 1. 선택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거, 2. 선택에 대한 어거스틴의 견해, 3.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묘한 논리에 대한 반박, 4. 복음초청의 보편성과 선택의 특수성, 5. 유기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음.

4 1. 선택은 인정하나 유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 2. 하나님의 뜻이 의(義)의 기준임(첫 번째 반론: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확증되며, 악인은 그들에게 정해진 공의로운 멸망을 창조함”이라는 내용으로, 예정론에 대한 반박들을 17가지⁵로 대응한다. 즉,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가 원하신 바를 친히 그의 영원한 작정으로 말미암아 결정하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God’s Eternal Decree)을 가리켜, 예정이라고 말한다.⁶ 모든 사람이 모두 동등한 조건으로 창조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미리 정해져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미리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 2가지 중 어느 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생명이 이르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고 말한다.⁷ 헬만 바빙크에 의하면, “칼빈은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운명을 미리 정해 놓고, 그것대로 흘러가는 운명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⁸ 왜냐하면 유기의 작정은 그 궁극적 원인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으나, 유기자체는 죄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기의 작정(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를 공의로 내버려두심)과 유기 자체는 다르다. 하나님은 먼 과거(시간)에 작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다. 인간의

교리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는 논리이다), 3. 유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조처임, 4.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작정(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혈문의 대상이 아니다), 5.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탐구의 대상이 아님, 6. **두 번째 반론**: 선택이 사람의 책임을 제거한다는 논리, 7.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예정에 속함, 8. 하나님의 뜻과 허용의 구별이 없음(아담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허용하심), 9. 멸망의 상태에 빠진 원인은 사람 자신에게 있음, 10. **세 번째 반론**: 하나님이 사람들을 편파적으로 대하신다는 논리, 11. 예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의, 12. **네 번째 반론**: 선택교리가 올바른 삶을 향한 열심을 무너뜨린다는 논리(예정교리는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된 것임), 13. **다섯 번째 반론**: 선택교리가 모든 권고들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논리, 14. 어거스틴의 지혜로운 가르침.

5. 1. 부르심은 선택에 근거하며 따라서 오직 은혜의 역사임, 2.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 3. 믿음은 선택의 결과이지 선택의 조건이 아님, 4.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는 바른 길, 5. 선택에 대한 확신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함, 6. 선택의 확고함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 7. 선택과 견인, 8.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 9. 멸망의 자식만 버림받음, 10.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선택받은 자의 모습, 11. 선택의 씨앗에 관한 사고는 허구임, 12.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 13. 말씀은 받고서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현상, 14. 버림받은 자들의 완악함의 원인, 15. 에스겔 33:11의 증거, 16. 디모데전서 2:4절과 기타 구절들의 증거, 17. 추가적인 반론들에 대한 반박.

6 John Calvin, *Institutes* 3.21.5.

7 John Calvin, *Institutes* 3.21.5.

8 헬만 바빙크, 『개혁교의학』2, 박태현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495.

모든 미래는 과거의 행위와 성향을 기초로 하여 정해지는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먼 미래와 먼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에게는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영원(永遠) 속에서 만물을 작정하시는 것이다. 인간에게 매 순간은 하나님에게 영원의 의미와 동일하다. 즉, 모든 인간의 역사와 이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창조와 섭리하시는 하나의 장이다. 그런 그분의 영원한 작정이 모든 사람을 동등한 조건으로 인도받지 않게 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된 이런 창조의 성향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생명과 저주의 길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정되었다. 그 영광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과연 무엇일까?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치 마른 나무 막대기와도 같은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서 한 백성이 특별히 선택되며, 동시에 다른 백성들은 거기에서 제외된다.⁹ 다만 후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선택받은 사실을 자랑할 기회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가 그들이 뛰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사랑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그는 그들이 구원받은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신4:37)¹⁰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작정하시고, 선택하시는 모든 뜻은 바로 “사랑”(부르심)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랑”(부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원하신 작정으로 예비하셨다는 것이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마음이 어떨까? 마치 자기 자식을 사랑하듯, 애지중지하며, 그릇이 명품이 될지 졸작이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마지막 순간까지 토기를 만들지 않겠는가? 창조자의 마음은 바로 그런 “사랑”(부르심)의 마음이다. 하물며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의 마음도 그렇다고 한다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는

9 John Calvin, *Institutes* 3.21.5.

10 John Calvin, *Institutes* 3.21.5.

가? 또 한 번 “사랑”(부르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만드신 우주 만물을 그냥 세상의 우연에 맡겨두겠는가? 토기장이가 정성을 다하여 만든 명품 그릇을 과연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내버려두겠는가?¹¹ 하나님은 스스로 만드신 만물을 또 다시 완전한 사랑의 “작정”으로 계획하시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 뜻은 바로 “사랑”(부르심)이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이요, 영원한 작정의 본질은 “사랑”(부르심)이다. 즉,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와 사랑(부르심)에 근거한다.¹²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히 그 뜻에 우리를 맡길 수 있다. 그 뜻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뜻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문제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한계 때문이다. 왜냐하면 유한은 무한을 포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에 있어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다만 철학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와 모든 민족에 게도 공통적으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악이다. 자신의 이해 범위 내에 하나님의 주권을 한정시키려는 사람들과 자신의 감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¹³ 또, 니이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감각이 확정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범위를 가진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모든 뜻 위에 존재한다.¹⁴ 우리의 모든 의지를 계획하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인간이 인식할 수 있겠는가?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감히 자신을 창조하신 토기장이의 뜻을 이해하려고, 그 뜻

11 John Calvin, *Institutes* 3.22.4.

12 임창복, 『개혁신학과 기독교교육』(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자원부, 2007), 255.

13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181.

14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60.

을 해석하려는 것이 오히려 무리한 발상은 아닐까? 우리는 오직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인 자유의지 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모든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의 영향이 단지 여러 교리의 한 부분이 아니라, 『기독교 강요』 전체에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정론이 무엇이고, 어떤 모습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 제3권의 21장을 중심으로 바로 예정론의 특징은 무엇인가? 칼빈은 당시에 예지로 예정을 설명하려는 이들이 있음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정의 교리를 간단하게 부인해 버릴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반대자들, 특히 예지(豫知=foreknowledge)를 예정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예정론에 대해서 온갖 사소한 반론들을 제기하고 있다.¹⁵ 사실 우리는 예지와 예정의 2가지 교리를 모두 하나님께 두고 있다. 그러나 그중 하나를 다른 하나에 종속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¹⁶ 하나님께 예지(전지)가 있다는 것은, 만물이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있었고, 영원토록 그런 상태로 있을 것이므로, 하나님의 지식으로서는 미래나 과거에 속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현재(동시성)라는 의미이다.¹⁷ 칼빈은 위에서 예지가 예정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많은 반대론자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므로 무엇이든지 아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각 사람들의 미래적 성향을 잘 알아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예지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는 미래와 현재가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세계에서 미래의 것이나 현재의 것이나 모두 현재와 같이 인식된다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15 John Calvin, *Institutes* 3.21.5; 3.22.1; 3.22.8.

16 John Calvin, *Institutes* 3.21.5.

17 John Calvin, *Institutes* 3.21.5.

의 세계인 영원에서의 인식인 것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미래와 현재는 하나님에게는 모두 현재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현재를 인식하시고, 그것을 미래의 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미래, 현재, 과거를 모두 알고 있고, 그것들을 마치 현재와 같이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예정과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칼빈이 말하는 예지(豫知=全知)는 영원한 시간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또한 예정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에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분의 의지이다. 그러므로 ‘영원’이라는 개념 안에서, 예지와 예정은 결코 따로 떨어져서 생각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 둘 중 하나를 다른 하나에 종속시킬 수 없는 것이다.¹⁸ 하나님은 “영원”의 세계에 계신다. 그런 존재에게 미래를 미리 아는 것에 대한 인간적 이해도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모든 것을 현재로 인식하는 하나님에게 미래에 대한 운명론적 계획은 더욱이 맞지 않는 표현일 것이다.

3. 박형룡 학파의 예정론¹⁹

박형룡 학파의 원조(元祖)인 죽산(竹山) 박형룡(朴亨龍)은 그의 저서, 『교의신학』 제2권(신론)에서, 예정론²⁰을 다룬다. 죽산은 그의 예정론을 일반적 작정과 예정(豫定)으로 나누고, 먼저, 작정(作定)에 대하여 5가지로 논술한다. 즉, “신학과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의 증명, 작정의 성질, 신적 작정의 특성, 이의(異議)와 실용적 가치”를 다룬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정에 대하여 6가지로 논한다. 즉, “신학과 성경에서의 예정의 교리, 예정의 주체와 대상, 선택(選擇), 유기(遺棄), 선택설(前擇說)과 후택설(後擇說), 다른 교파들의 예정관”을 다룬

18 John Calvin, *Institutes* 3.21.5.

19 Predestinationism of Hyung Nong Park's School

20 박형룡, 『교의신학』 제2권(신론), (서울: 은성문화사, 1967), 241-321.

다. 죽산은 칼빈의 예정론을 따르고 있는 후대의 개혁신학자들의 사상을 그대로 인용하고 수용한다. 특히, 죽산은 선택교리²¹를 설명하면서, 무엇보다도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제3장²²을 인용하고 관철하는데, 이는 분명히 성경적이며, 칼빈신학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죽산은 선택의 이유와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있으나(롬9:16), “유기(reprobation)의 이유와 근거는 그 자신들에게 있다.”(요3:18-9)²³고 해설한다. 죽산은 선택의 특성으로서, 6가지를 언급한다. 즉, “주권적,²⁴ 무조건적,²⁵ 그리스도 안에서,²⁶ 불변적,²⁷ 영원적,²⁸ 불가항적²⁹ 요소를 설명한다. 그러나 죽산은 마지막 항목인 “불가항적”이란 의미가 “하나님의 선택의 실행에 대하여 사람은 어떤 정도의 반항을 시도하지 못함은 아니나, 그의 반항이 승리하지 못할 것은 확실하다. 또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선택의 작정을 실행하심에 있어서, 사람의 의지를 그의 자유동인(自由動因)에 모순되는 양식으로 억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능히 또는 실제로 사람의 영(靈)에 감화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⁰고 설명한다. 죽산은 유기(遺棄)에 대하여, 모즐레(Mozley)의 말을 인용한다.³¹ 즉, “영원에서 하나님은 (전적 패괴한) 아담의 후손들 중의 (얼마는 구출하고), 얼

21 박형룡, 『교의신학』제2권(신론), 283-293.

22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또는 그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게 예정되고 어떤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예정되었느니라.

23 John Calvin, *Institutes* 3.24.

24 John Calvin, *Institutes* 3.21.1. 3.21.7. 롬9:15, 엡1:9, 11.

25 행13:48, 롬9:11, 딤후1:9, 2:21, 벰전1:1-2.

26 엡1:4, 9, 딤후1:9, 롬3:25, 벰전1:19-20, (비교 요3:15, 롬5:8, 딤후1:9, 요일4:9): “중보로서의 그리스도는 선택의 강박적, 추동적(推動的), 공로적 원인이 아니었다. 그리스도는 선택의 실행의 매개적 원인 또는 선택의 목적인 구원의 공로적 원인이라 칭할 수 있으나, 선택 자체의 추동적 혹은 공로적 원인이시기 불가능은 그 자신이 예정과 선택의 대상이신 때문이며, 구속의 의론에서 그가 중보적 사역을 담임하실 때, 그에게 주어진 일정수(一定數)의 백성이 이미 있었던 때문이다. 선택은 논리적으로 평화의 의론보다 앞선다.”(박형룡, 『교의신학』제2권(신론), 289.)

27 롬8:29-30, 11:29, 딤후2:19.

28 롬8:29-30, 엡1:4-5.

29 시110:3, 빌2:13,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10장 1단.

30 박형룡, 『교의신학』제2권(신론), 290.

31 박형룡, 『교의신학』제2권(신론), 293-4.

마를 그들의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³²고 설명한다. 그러나 죽산은 유기를 설명하는 주(註)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인다.

즉, “교회의 신도개요들과 교의신학 서류에서 선택과 유기가 병기(並記)되어, 신적 예정의 두 균형적 작정들인 듯한 인상을 준다. 선택은 유기를 함의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의하여 교회의 선택교리는 자주 이중예정(二重 예정)의 교리로 해석되었다. 개혁과 선택교리는 이 병행(並行)에 대해서 논의하고 항상 기각한다. 이 병행에 대한 엄격한 경고가 교의학적 논의에서만 아니라, 신도개요들에서도 발표되었다.³³ 선택과 유기의 병치에 대하여 바빙크는 이중예정을 말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그것은 그 한 경우에서의 예정이 그 다른 경우에서의 그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망에 향한 예정’을 ‘생명에 향한 예정’과 동위(同位)에 두고, 사망을 생명과 똑같이 최종목표로 고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개혁교회의 아무도 감히 ‘죄에 향한 예정’을 말하지 아니하였다.”³⁴고 하였다.³⁵

한편, 그의 제자인 조봉근(趙鳳根)은 그의 저서, 『개혁교회 신론』³⁶에서 칼빈의 예정론에 대하여, 20가지 항목에 걸쳐서 세밀하게 해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³⁷ 예정의 신비와 경륜,³⁸ 타락 이전에 선택하셨

32 박형룡, 『교의신학』제2권(신론), 293; Mozley, *The Augustinian Doctrine of Predestination*, 297. 재인용.

33 헬만 바빙크, 『개혁교의학』2, 446-449.

34 헬만 바빙크, 『개혁교의학』2, 493.

35 박형룡, 박형룡, 『교의신학』제2권(신론), 305.

36 조봉근, 『개혁교회 신론』(광주: 복음문화사, 2011), 85-150.

37 조봉근, 『개혁교회 신론』, 90-92.

38 조봉근, 『개혁교회 신론』, 93-95.

나? 타락 이후에 선택하셨나?,³⁹ 이중예정이 병행적이며, 균형적인가?,⁴⁰ 예정론의 주장과 반대론의 반박,⁴¹ 영원과 시간의 묵상과 상고,⁴² 예정론과 숙명론의 구별,⁴³ 예정 안에서 인간의 노력과 추구는 무용한가?,⁴⁴ 불순종한 자들에게서 선택 받은 자들의 행진”⁴⁵ 등 보다 개선된 설명을 하고 있다. 요컨대, 조봉근은 “하나님께서 영원세계에서 시간세계(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적(同時的)으로 보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한 인류의 타락을 공의로 심판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혜)으로 일부를 구원하시고, 일부는 그대로 내버려두신 것이 선택과 유기교리이다. 역사적으로 ‘이중예정’이란 말이 선택교리와 더불어 유기교리와 관련되어 나란히 사용되어 왔으나, 구원(선택)과 멸망(유기)이 완전히 균형적인 2가지 측면이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원인(은혜)이시지만, 그대로 유기된 사람들이 멸망의 원인(책임)은 아니시기 때문이다.”⁴⁶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안양대학교의 이은선은 단지 “베자의 절대예정론”을 다루었다.

4. 이중성 학파의 예정론⁴⁷

이중성 학파의 원조인 춘계(春溪) 이중성(李鍾聲)은 그의 저서, 『신론』에서 본

39 조봉근, 『개혁교회 신론』, 95-98. 여기서 조봉근은 “진지(至知)하신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인간의 신앙과 선행(善行)보다 우선이며, 원천이요, 먼저이다. 그러므로, ‘영광에의 예정’은 항상 ‘은총에의 예정’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40 조봉근, 『개혁교회 신론』, 98-101.

41 조봉근, 『개혁교회 신론』, 102-105.

42 조봉근, 『개혁교회 신론』, 106-108.

43 조봉근, 『개혁교회 신론』, 131-134.

44 조봉근, 『개혁교회 신론』, 134-137.

45 조봉근, 『개혁교회 신론』, 138-140.

46 조봉근, 『개혁교회 신론』, 96-101.

47 Predestinationism of Jong Sung Rhee's School

론(本論)이 아닌 부록(附錄)에서 예정론⁴⁸을 다룬다. 춘계는 처음에 성서의 교훈⁴⁹과 어거스틴과 칼빈의 예정론⁵⁰을 잘 설명하다가, 결국 어거스틴이나 칼빈보다 바르트의 선택론⁵¹을 지지한다. 그러나 바르트는 전통적 기독교론을 거부하고, 변증법적 기독교론⁵²을 새롭게 창안한다. 또한 전통적 기독교론과 전통적 삼위일체론에서 멀어진다. 그런데 묘하게도 춘계는 결론에서, “바르트의 선택의 교리는 복음의 총화(總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이 사람을 택한다는 것과 신은 자유 안에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 기초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택하신 신(神)인 동시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신론의 일부이기도 하다. 즉, 본래 인간에 대한 신의 선택은 사람을 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자신(神自身)을 예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⁵³ 그것의 기능은 신의 모든 방법과 역사의 시작으로서 영원 무궁하고 자유로우시고 불변하는 은총에 대한 증거를 하는 것이다.”⁵⁴라고 하면서, 끝을 맺는다. 그런데 이종성은 “칼빈의 예정론은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예정론보다 더 극단적이다. 특히, 인간의 타락을 신이 원해서 일어났다고 한 것은 그의 예정사상이 숙명론으로 이끌어 갈 위험성이 많다.”⁵⁵고 악평하고,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아주 잘못된 평가를 내렸다. 다시 말해서 이종성은 바르트의 선택론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한편, 그의 제자인 김

48 이종성, 『신론』(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349-370.

49 이종성, 『신론』, 350-351.

50 이종성, 『신론』, 351-364.

51 칼 바르트는 그의 『교회 교의학』II/2에서, “신의 선택”이란 제목 하에, “은총의 선택에 관한 바른 교리의 문제점,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공동체의 선택, 개인의 선택”을 다룬다.

52 이종성, 『신론』, 366; Karl Barth, *CD*, II/2, 116.

53 이종성, 『신론』, 367: “전통적 예정론은 예정의 대상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택이란 신이 신자를 택하는 행위다. 신은 사람을 택할 때, 그들을 택해서 그의 계약의 대상으로 삼아서 자기가 혼자 있지 않으려고 택한 것이다.”(Karl Barth, *Church Dogmatics* II/2, 101)

54 Karl Barth, *Church Dogmatics* II/2, 3.

55 이종성, 『신론』, 362.

명용은 그의 저서, 『현대의 도전과 오늘의 조직신학』⁵⁶과 『칼 바르트의 신학』⁵⁷에서, 바르트의 예정론을 말한다.⁵⁸ 김명용은 바르트의 선택론을 소개함에 있어서, 이종성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설명했다.⁵⁹ 김명용에 의하면, 바르트는 1936년에 발표한 예정론에서는 분명히 유기(버림)까지를 언급했다.⁶⁰ 그러나 그의 “1942년의 예정론에서는 하나님의 행위가 오직 은총과 선택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요약된다.”⁶¹고 설명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긍정만을 말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에 의해 참으로 버림받은 인간은 없다.”⁶²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단순한 성경적 시사를 변증법적으로 오도한 그릇된 주장이다. 결국, “하나님의 예정이 만민을 향한 선택이라는 바르트의 주장은 이내 만인구원론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다.”⁶³고 김명용도 시인하고 있다. 김명용은 “예정론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를 말한다. 즉, “첫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이중예정 교리는 잘못되었다.⁶⁴ 둘째, 예정론은 복음의 총화이다.⁶⁵ 셋째, 예정론은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교리이다.⁶⁶ 넷째, 예

56 김명용, “오늘의 예정론,” 『현대의 도전과 오늘의 조직신학』(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62-83; 김명용은 이 책, 83면의 결론에서, 전통적 예정론은 하나님의 예정을 기계론적인 경향으로 언급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심각한 갈등상황을 야기시켰고, 복음전파의 진지함을 파괴시킬 여지를 남겨 놓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통적 예정론의 오류는 바르트와 몰트만으로 이어지는 20C의 위대한 개혁교회 신학자들에 의해 크게 수정되어 매우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예정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57 김명용, 『칼 바르트의 신학』(서울: 이레서원, 2007), 149-174.

58 그러나 박순경 박사가 “칼 바르트(Karl Barth)의 교의학에 있어서의 예정론”을 이미 제6회(1967년 4월 22일) 한국조직신학회에서 발표했다.

59 김명용, 『칼 바르트의 신학』, 158-162.

60 김명용, 『칼 바르트의 신학』, 158.

61 김명용, 『칼 바르트의 신학』, 166.

62 김명용, 『칼 바르트의 신학』, 166.

63 김명용, 『칼 바르트의 신학』, 168.

64 김명용, “오늘의 예정론,” 『현대의 도전과 오늘의 조직신학』, 74-77.

65 김명용, “오늘의 예정론,” 『현대의 도전과 오늘의 조직신학』, 77-78.

66 김명용, “오늘의 예정론,” 『현대의 도전과 오늘의 조직신학』, 78-79.

정론은 신앙의 우연성과 무상성을 반대하는 교리이다.⁶⁷ 다섯째, 예정론은 하나님의 섭리론의 핵심이다.⁶⁸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김명용은 언필칭 예정론을 운운하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에서의 예정론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분명히 성경과 칼빈의 예정론(기독교 강요)을 크게 오해한데서 온 주장이다. 한편, 최윤배도 “논의 중에 있는 칼빈의 예정론”⁶⁹을 다루면서, 전통적 개혁교회의 입장을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것 같다.

5. 김재준 학파의 예정론

김재준 학파의 원조인 장공(長空) 김재준(金在俊)은 원래 한국장로교회에 최초로 바르트의 사상을 도입한 결과로 실제로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 별다른 논의가 없다. 장공학파의 한신대학교의 교수들은 거의 예정론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신학대학의 박봉량의 “신의 예정론의 기독교론적 해석; 예정론의 인식론적 근거”라는 주제로 “칼 바르트의 예정론”이 발표된다. 그리고 그의 제자요, 연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김균진의 책, 『기독교 조직신학』 제1권의 신론⁷⁰에서 예정론에 대한 논술이 발견된다. 그러나 김균진은 칼빈의 예정론을 부정적으로 논평하고, 오히려 바르트의 기독교론적 선택론을 옹호한다.⁷¹ 그러나 김균진은 만인구원론(萬人救援論)에 대해서는 바르트신학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오히려 전통적 해석⁷²을 따르고 있다. 김균진이 그의 저

67 김명용, “오늘의 예정론,” 『현대의 도전과 오늘의 조직신학』, 79-81.

68 김명용, “오늘의 예정론,” 『현대의 도전과 오늘의 조직신학』, 81-82.

69 최윤배, “논의 중에 있는 칼빈의 예정론,” 『현대와 신학』 제25집 (서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04), 330-331.

70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 제1권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4), 261-277.

71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 제1권, 269-274.

72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 제1권, 271-272.

서, 『기독교 조직신학』 제1권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예정”⁷³이란 제목으로 설명한 내용은 전통적 입장으로 볼 때도 상당히 고무적인 설명이 된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⁷⁴과 “이중예정론의 문제”⁷⁵란 제목으로 논한 내용은 역시 아직도 그가 바르트 신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균진은 영원적 선택과 유기론을 반박하면서, “이중예정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사실상 무의미하다.”⁷⁶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서 어느 곳에서도 일부의 사람은 구원으로, 다른 일부의 사람들은 멸망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발견할 수 없다.”⁷⁷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주장은 그가 오히려 단순한 성경적 증거(말1:2-3, 롬8:29-30, 9:13, 엡1:4, 7)를 무시하고, 그릇되게 독단적 해석을 내린 것이다.

결국, 김균진은 전경연(全景淵)의 칼빈의 이중예정설⁷⁸에 대한 반대이론⁷⁹과 알트하우스(P. Althaus)⁸⁰와 틸리히(P. Tillich)의 이중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점⁸¹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으며, 에벨링(G. Ebeling)의 은혜의 보편성(普遍性)을 그대로 지지한 것이다. 그러나 김균진은 “이 은혜의 보편성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운 분이시지만, 그의 은혜를 부정하는 자는 이 세계의 끝 날까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⁸²고 결론짓는다. 이것은 김균진이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칼빈의 이중예정론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김균진에 의하면, “바르트가 1936년과 1942년의 예정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예정에

73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 제1권, 264-267.

74 Karl Barth, *KD II/2*, S. 112 ff.

75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 제1권, 267-274.

76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 제1권, 270.

77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 제1권, 270.

78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복음주의 신학총서 제27권, 1982, 163.

79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 제1권, 272.

80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 제1권, 272-273.

81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 제1권, 273.

82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 제1권, 274.

대한 인간의 믿음의 결단을 중요시했다.”⁸³고 토로한다. 한편, 한신대학교의 오영석은 예정론에 대한 별다른 작품이 없다. 그러나 오영석은 그의 책, 『조직신학의 이해』⁸⁴에서, “선행으로 창조”를 주장하면서, 간접적으로 라이프니츠와 칼 바르트를 약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설이란 “신은 모든 것을 예정해 놓았다. 육체와 정신이 있을 때, 정신이 육체에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니다. 육체와 정신은 실제로는 따로 놀지만 신에 의해서 정교하게 서로 맞물리도록 예정 조화되었다. 아주 정확한 2개의 시계가 있을 때, 2개의 시계는 따로 놀지만 언제나 똑같은 시간을 가리킨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신이다. 즉, 우리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신과 육체의 작용은 어떠한 인과관계나 상호연관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예정조화는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설계되었고, 한 번 예정조화된 것은 신이라도 바꾸지 못한다. 그리고 신의 창조는 절대적 선이 아닌 가능한 한 최선의 세계를 창조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이라도 모순된 것은 창조하지 못한다. 자유의지와 악은 모순이 되므로, 자유의지를 주려면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악이 존재하는 세계를 창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6. 박윤선 학파의 예정론

박윤선 학파의 원조인 정암(正岩) 박윤선(朴允善)의 예정론은 그의 유고문서인 『개혁주의 교리학』(Reformed Dogmatics)⁸⁵ 제2편 신론의 제4장에서, 하나님의 예정경륜(豫定經綸)이란 제목으로 간략하게 서술된다. 또, 정암은 그의 『로마서

83 김균진, “칼 바르트의 예정론,” 『기독교사상』 296호, 1983년 2월호, 140; Karl Barth, *KD* II/2, 498.

84 오영석, 『조직신학의 이해』(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367.

85 박윤선, 『개혁주의 교리학』(서울: 영음사, 2003), 126-133; 이 책은 김재성이 수집하여, 편집했다.

주석』⁸⁶에서 예정론을 다룬다. 정암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롬9:13)를 주석할 때, “심리적인 증오(憎惡)를 말함이 아니고, 택하지 않으셨다는 뜻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신 선택은, 전자(專恣)행위가 아니고, 오직 그의 지혜와 사랑과 공의로 하신 것이라.”고 주석한다. 정암은 예정론을 설명함에 있어, 죽산의 예정론과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하거나 흡사(恰似)하였다. 그러나 신복윤은 그의 저서, 『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⁸⁷에서, 예정론을 칼빈의 최종판대로 구원론에서 다루었다.

정암은 특히, “예정론에 대한 바르트의 반대론”을 언급하면서, “바르트가 예정론을 믿지 않고, 신화적 표현⁸⁸이라.”고 한 점을 지적하였다.⁸⁹ 그 후, 예정론은 고려신학대학원의 유해무의 『개혁교의학』(Reformed Dogmatics)⁹⁰에서 설명되는데, 유해무는 “하나님의 뜻(作定)”이란 제목으로 예정론을 다룬다. 유해무는 작정과 예정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대요리문답 12-14문답, 소요리문답 7-8문답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밝힌다.⁹¹ 그러나 유해무는 예정론에 대한 바르트의 기독교적 재해석을 상당히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⁹² 유해무는 헤페·비제르(Heppe/Bizer)와 헬만 바빙크(Herman Bavinck)의 논의를 보다 깊이 다룬다. 한편, 김재성은 그의 저서, 『개혁신학의 광맥』⁹³에서, “예정론을 서구 철학에서 말하는 운명론으로 생각해서 반대하거나 오해하면 큰일이다. 운명론은 전혀 비인격적인 사상이다. (거기에) 필연적인 결정을 하는 존재란 아무도 없다.”⁹⁴고 말하면서, “칼빈은 스토아학파의 결정론에 대해서 매우 날카롭게 지적

86 박윤선, 『성경주석 로마서』(서울: 영음사, 1969), 롬9:11-26.

87 신복윤, 『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5), 223-232.

88 Karl Barth, *The Epistle to the Romans* (1957), 347.

89 박윤선, 『개혁주의 교리학』, 133.

90 유해무, 『개혁교의학』(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187-203.

91 유해무, 『개혁교의학』, 187.

92 유해무, 『개혁교의학』, 188.

93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서울: 이레서원, 2001), 159-162.

94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 159-160.

한 바 있다.”⁹⁵고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각자의 결정을 허용하시고, 사용하시고, 시기와 형편과 내용들이 모두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섭리하시는 것이다.”⁹⁶라고 풀이했다. 뿐만 아니라 김재성은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근원과 발전”을 논하는 책을 번역했다.⁹⁷

7. 김영한 학파의 예정론

김영한 학파의 원조인 은혜(恩慧) 김영한(金英漢)은 열린 보수주의와 포용적 독자노선을 견지하면서,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바르트의 선택론을 파헤친다. 은혜(恩慧)는 바르트의 계시관(변증법적 신학)을 그의 저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에서 상당 부분을 비판하였고,⁹⁸ 바르트의 예정론⁹⁹을 “은총의 선택론으로의 예정론”과 “기독교적 일원예정론-전통적 이중예정론의 수정”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깊이 분석한다. 즉, 은혜(恩慧)는 바르트의 예정론을 다음과 같이 규명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중(二重)으로 규정한다. 첫째, 신은 스스로를 선택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자기 자신과 관계한다(Karl Barth, KD II/2, 169). 둘째, 신은 스스로를 선택된 자로 규정하면서 인간과 관계된다(E. J. ngel, Gottes Sein ist im Werden, T bingen 1967, 84). 이 신의 원결정에 있어서, 언급되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는 신 앞에서 인류의 대표자이다. 이 하나님의 구체적 원결정은 무엇인가? 이 구체적 원결정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앞서가는 하나님의 결단이다. 이 원결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

95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 160.

96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 161.

97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181, 317, 323-324.

98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2010), 40.

99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70-77.

행된 하나님의 원결정은 곧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결정의 인식근거요 존재근거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예정의 주체요 동시에 대상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안에서 선택하는 하나님이며, 동시에 선택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Karl Barth, *KD II/1*, 157).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에서의 하나님의 구체적 결정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통해 실현된다.”¹⁰⁰

은혜(恩慧)에 의하면,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수행되는 하나님의 예정에는 은총의 예정만이 있으며, 유기의 예정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그의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총의 선택론이다.¹⁰¹ 은혜(恩慧)에 의하면, “바르트는 기독교론의 두 본성론에 은총의 개념으로서 정통신학의 이중적 예정과 유기의 교리를 흡수시킨다.” 즉, 그는 예정과 유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신성과 인성)에 적용한다. 결국, 그의 시도는 전통적 이중예정론에 대한 수정이다. 그는 예정론을 말하나 더 이상 이중예정이라 아니라 “기독교론적 일원 예정론”(은총의 선택만)으로 수정된다. 즉, 그는 예정론의 전개에서, 불신자들에 대한 전통적 유기론을 기독교론적으로 변형시키면서,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유기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이것은.....이미 그 근원에 있어서 영원 전부터 이중예정이다.¹⁰² 그는 이렇게 변모된 양식으로 이중예정을 긍정한다.”¹⁰³고 주장한다. 그리고 은혜(恩慧)에 의하면, “1953년의 화해론에서, 바르트는 배타적 객관적인 화해론을 강조하여, 하나님의 화해가 인간의 신앙과 불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객관적으로 십자가에서 일어났다.”¹⁰⁴고 선언한다. 따라서 김영한은 “바르

100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71.

101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73.

102 Karl Barth, *KD II/2*, 176. 재인용

103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75.

104 김명용, “칼 바르트 신학에 있어서 예정론의 발전,” 『기독교사상』398호, 1992년 2월호, 113-114.

트는 결국 ‘만유화해’ 내지 ‘만인구원’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고 있다.¹⁰⁵

8. 역사적 논의들

슈바이처(Alexander Schweizer)로부터 시작되는 예정론의 논의를 보면, 그는 19세기 중엽에 루터파와 구별되는 칼빈파의 특징이 예정론을 중심교리(Central Dogma)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후에 칼빈과 그의 후예인 개혁과 정통 신앙의 중심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¹⁰⁶ 그러나 바르트 가 칼빈신학을 기독교 중심으로 재평가한 이후에 칼빈과 베자로 대표되는 칼빈 이후의 개혁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즉, 칼빈과 개혁과 정통신학은 기독교 중심과 예정론 중심의 이중구도로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다.¹⁰⁷ 이러한 움직임은 1960년대 이후, 바르트 신학자들이 “칼빈주의자들에 대항하는 갈뱅”(Calvin against Calvinists)이라는 해석을 하면서 시작되었다.¹⁰⁸ 이런 움직임들의 핵심 주장은 예정론을 구원론의 입장에서 신앙적 확신을 주기 위한 의도로 기술했던 칼빈의 의도가 칼빈의 후계자였던 베자에 와서는 변질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 변질이라는 것은 1555년에 베자가 썼던 『예정론 도식』이라는 책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작품에서 베자는 하나님의 작정이 진행되는 순서를 보여주는 도식(tabula)을 제시하며, 예정론을 신론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예정이 모든 섭리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곧 죄와 유기의 원인 또한 하나님으로 돌림을 의미한다. 바로 이런 베자의 예정론에 대한 관점이 모든 신학

105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95.

106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317.

107 이은신, “테오도르 베자의 예정론,” 『신학지평』제8집 (경기: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여름 ■ 가을호, 1998), 79.

108 이승구, “개혁과 정통신학에 대한 멀리 테제에 대한 교의학적 성찰,” 『성경과 신학』제43집, (서울: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07), 72.

을 기독교론 중심으로 바라보았던 바르트 신학자들에 의해 비판받기 시작한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 슈바이처(Alexander Schweizer)부터 시작되는 예정론의 의미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는 19세기 중엽에 루터파와 구별되는 칼빈파의 특징이 예정론을 중심교리(Central dogma)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후에 칼빈과 그의 후예인 개혁파 정통신앙의 중심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¹⁰⁹ 그러나 바르트가 칼빈신학을 기독교론 중심으로 재평가한 이후에, 칼빈과 베자로 대표되는 칼빈이후의 개혁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즉, 칼빈과 개혁파 정통신학은 기독교론 중심과 예정론 중심의 이중구도로 구분(분리)된다.¹¹⁰ 이처럼 비저(Ernst Bizer)는 『초기정통주의와 합리주의』¹¹¹에서 베자가 칼빈신학을 왜곡시킨 장본인이라고 지적하였고, 칼빈신학은 성경주석과 교회의 목회적 필요에 따라 전개되었으나, 베자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근거하여 형이상학적인 합리주의신학을 수립하였다.¹¹² 또한 키켈(Walter Kickel)은 『테오도르 베자에게서의 이성과 계시』(Vernunft und Offenbarung bei Theodore Beza)를 통해서 베자가 스콜라주의를 형성했던 주요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칼빈의 예정론은 구원론의 뒷부분에 위치하는데 반해서, 베자의 경우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이 신론에서 논의되었고, 내용면에서는 칼빈의 신앙적 측면을 무시하고 합리적 측면을 강조하여 베자의 예정론은 칼빈교리의 합리화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키켈은 베자의 예정론의 합리화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것은 베자의 전체방법론, 특별히 그의 예정론 교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짓는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으로 베자신학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와 말씀이 제거되어, 칼빈의 그리스도중심과 대조적으로 베자의 신학은 예정이란 최종적 원인의 합리적 체계로 대치되었

109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317.

110 이은선, "테오도르 베자의 예정론," 『신학지평』 제8집, 79.

111 Fr. Horthodoxie und Rationalismus

112 이은선, "테오도르 베자의 예정론," 『신학지평』 제8집, 136.

다.¹¹³ 더욱이 바르트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칼빈신학자들도 이러한 칼빈과 베자의 차이를 주장한다. 필립 홀트롭(Philip C. Holtrop)은 “예정론은 구원론 또는 성화의 결론부분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도 다를 수 없다.”¹¹⁴고 말한다. 또,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을 저술했던 프랑수아 방델(Fran ois Wendel)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559년에 이룩한 예정과 섭리의 비교는 이 2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의지의 동일한 결정, 즉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결정에서 비롯된다는 확신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1559년에 칼빈은 예정에 관한 문제를 신론과 연관을 지어서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그는 예정을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과 연관을 지어서, 선택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보다 명백히 밝히고자 했다.”¹¹⁵ 이 외에도 암스트롱, 도웨이, 스타인메츠, 바질 홀, 쾨달 등은 칼빈과 베자의 불연속성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예정론을 신론에서 다루었던 베자의 신학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다시 요약하면, 즉 칼빈은 예정론을 구원론의 부분에서 설명함으로써, 성도에게 신앙적 확신을 주는데 선용했다면, 베자는 예정론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스콜라철학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론의 부분에만 위치시키는 오류를 범하여, 하나님을 죄를 창조하시는 분, 유기를 미리 정하신 분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또, 바질 홀의 표현에 의하면, “베자는 칼빈이 단으려고 노력했던 사색적 결정주의의 문을 다시 열었다.”고 말하며, 베자가 예정론을 신론의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그러나 칼빈의 예정론이 구원론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신학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물론 예정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의 한 측면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상은 하나님의 한 사역에서만 드러내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피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역의 한 측면을 보여줄지라도 그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조가 된다. 다시 말해서 예정론

113 이은선, “데오도르 베자의 예정론,” 『신학지평』 제8집, 136.

114 박희석, 『기독교 강요 연구 핸드북』(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441.

115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323-324.

은 신문이나 구원론의 측면에서만 다루어질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교리체계이다. 물론 예정론이 신문에서 다루어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버트 레이몬드는 『최신조직신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중심신학이나 인간중심신학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그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최우선적 목적인 것처럼, 그분 자신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고 그분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목적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¹¹⁶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계획을 창세전부터 이루셨다고 말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뜻과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한다. 즉, 로버트 레이몬드의 말을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이땅에 오신 분이시다.¹¹⁷ 즉,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정은 동일선상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예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예정으로 완성된다. 이러한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해 놓으셨으며”(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항)라고 되어 있다. 로버트 레이몬드는 예정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총체적 목적인 영광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그것은 예정은 하나의 부분으로서 다루어져야 하는 교리의 한 측면으로서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

116 로버트 L. 레이몬드, 안명준 외 공역, 『최신조직신학』(서울: CLC, 2004), 444.

117 안명준 외 공역, 『최신조직신학』, 444.

는 것이다. 칼빈은 “믿음”이란, 그분에 의해 옷 입혀지고, 채움을 받고, 자유를 얻고, 비침을 받고, 교정을 받고, 지탱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아마도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계획,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믿음)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믿음”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인도된다는 섭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믿음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정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칼빈은 그런 의미에서 건전한 교리와 영광과 예정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정은 결코 따로 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예정은 칼빈사상의 전체적 중심인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결코 따로 한 부분의 교리로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예정론은 유희와 시험의 때의 요새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신앙고백인 것이다.”¹¹⁸ 이런 예정론의 칼빈신학 전체적 측면에 대해서 니이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칼빈이 선택교리를 논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인식은 말씀에서만 얻어져야 한다고 요구할 때,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물론, 이 경우에 칼빈은 먼저 성경을 증거한다. 이에 관련해서 ‘말씀’이라는 용어 대신에 ‘복음’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니이젤은 칼빈이 선택교리를 논했던 것이 그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므로 논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복음”안에서 나타난 교리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 가지 교리가 아니라 모든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전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하나의 기쁨의 메시지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한 때,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것처럼,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영생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다(구속언약과 은혜언약). 실로,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엡 1:4).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포착되어, 예

118 조봉근, 『칼빈의 사상과 기독교론 논쟁』(광주: 복음문화사, 2006), 88.

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감싸인 채’ 우리를 만나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의 선택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인식하며, 그 때,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 안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¹¹⁹ 니이젤은 칼빈이 인식하였던 “예정론”은 그저 성경의 몇 구절에 나타나 있던 교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교리에서 나타나 있는 “선택교리”라고 말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다면, 그 안에서 값없이 받은 택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무조건적인 창세전의 선택을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예정론”의 인식을 말한다. 또 보이스는 칼빈의 예정이 전능(全能)으로부터의 연역(演繹)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는 예정이 선행의 부정, 구원의 확실성, 하나님의 주권과 같은 어떤 원리들에 의해 해석된 경험에 기초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사상(主權思想)을 교리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말한다.¹²⁰ 이것은 칼빈신학에서의 예정은 한 교리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신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교리가 바로 예정교리(豫定敎理)라고 말한다. 즉,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주장하는 예정론은 칼빈신학의 전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칼빈은 철저하게 성경적 교훈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 칼빈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예정론으로 하나님의 영광신학(Doxology)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렇듯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 말씀의 한 부분으로서의 교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칼빈이 말하려는 신학의 한 부분도 아니었다. 예정론은 신구약 성경 전체와 칼빈신학 전체에 그 영향이 미쳐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119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162.

120 김중희, “칼빈의 예정론의 근거와 성격” 『현대와 신학』 제26집 (서울: 연세대학교 신학연구소, 2001), 386.

9. 나가는 말

사실, 예정론은 우리에게 3가지 이상의 유익을 준다. 그 유익은 모두 예정론을 성경적으로 믿을 때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인데,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가 원하신 바를 친히 그의 영원한 작정으로 말미암아 결정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God’s Eternal Decree)을 가리켜 예정이라고 말한다.” 이 예정론은 우주 모든 만물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참된 ‘겸손’을 가지게 하며, 만물을 맹목적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한다. 예정론이 주는 교훈은 만물의 창조와 종말까지 이른다. 즉, 예정론이 포함하고 있는 인식의 범위는 태초(영원)와 종말까지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예정이 포함하고 있는 범위와 그 유익이 부분적일 수 있는가? 실제로, 예정론이 주는 교훈은 과연 광범위하다. 또, 그 영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영향을 주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가 만물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알게 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확실한 소망을 준다. 그리고 또 그 지식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만물의 근원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영적 은혜의 근원을 지니신 왕적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모든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자신이 제사장 되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적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의 실수와 우연도 없이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이 세상에 선포하신 소망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더욱이 세상의 모든 근원이 창조주 아버지이시고, 모든 성경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며

로, 요컨대, 예정론이 주는 그 영향은 모든 교리에 퍼져 있는 것이다. 한편, 16세기 후반에, 제롬 잔키우스(이탈리아; Jerom Zanchius, 1516-1590)는 14개 논제를 제출했는데, 그 중에서 11개의 논제가 모두 예정론을 다루었고, 그 중에서, 다음의 5번과 6번이 너무 확고한 시사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즉, “5. 생명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멸망할 수 없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영생으로 예정되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심판받는다. 6. 한 번 선택받은 자는 유기자일 수 없고 유기될 수 없다.”¹²¹

121 이남규, “잔키우스와 스트라스부르 예정론 논쟁,” 『칼빈시대 유럽대륙의 종교개혁가들』(부산: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2014), 240.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in Calvin and
Korea Presbyterian Churches

Bong Geun Cho

(Emeritus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Kwangshin University)

In fact, Predestinationism is beneficial to give us three or more. Predestinationism all those benefits can be obtained when you believe in biblical it, according to Calvin, “How can God be for each person whether he won about what you intend to himself because of his eternal decision, we intend to God’s Eternal Decree, point will, says, “This Predestinationism the universe all things, the source of God returns only God ‘honored’ to receive it, and that God humans are the true ‘humility’ to have, and all things blindly made, it is not as ‘love’ in front of the sovereignty of God who made sure ‘hope’ to have the. A lesson Predestinationism all things leads to the creation and annihilation. In other words, recognize that contain Predestinationism the beginning of the range (eternity) and it should be up to the end. However, what will be contained in the current range and that there may be partially beneficial? In fact, extensive Predestinationism A lesson indeed. In addition, the impact of our influence extends the knowledge of God, the Creator and Redeemer, Jesus Christ, God extends the knowledge of influence.

And the knowledge of God the Creator is the source of all things, we became aware of God, and became the master of my life, to know humility before God, and the love of the Creator of the world due to complete God's plan, gives a certain hope. And also from the knowledge of the Redeemer, Jesus Christ became the source of all things originate from God, the source of spiritual grace of Christ to know Him and became the source of all life, God lowered himself to the place and have their own priests to sacrifice Let me know the new priestly Christ, without a single mistake and accident and life, the Creator of all things, the power of God and the love of Christ into the world to proclaim hope you know. As such aims and the eternal will of God, the knowledge of God the Father and the Son, Jesus Christ, has a big influence on the knowledge. Moreover, my father and my Creator, the source of all the world, that the Bible is al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evidence because, in short, is that Predestinationism inflate the influence of the doctrine of the will of all.

Key Words: Predestination, John Calvin, Karl Barth, God's Eternal Decree, Schools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참고문헌

1.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제1권.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4: 261-277.
2. 김균진. “칼 바르트의 예정론.” 『기독교사상』296호. 1983년 2월호: 140.
3. 김명용. “칼 바르트 신학에 있어서 예정론의 발전.” 『기독교사상』398호. 1992년 2월호: 113-114.
4. _____. “오늘의 예정론.” 『현대의 도전과 오늘의 조직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62-83
5.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40.
6.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7. _____. 『개혁신학의 광맥』, 서울: 이레서원, 2001: 159-165.
8. 김종희. “칼빈의 예정론의 근거와 성격.” 『현대와 신학』제26집. 서울: 연세대학교 신학연구소, 2001: 386.
9. 레이몬드, 로버트 L. 안명준 외 공역. 『최신조직신학』, 서울: CLC, 2004.
10. 바빙크, 헬만. 『개혁교의학』2. 박태현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11. 박봉량. “신의 예정론의 기독교론적 해석; 예정론의 인식론적 근거.” 한국신학대학, 1990.
12. 박순경. “칼 바르트의 교의학에 있어서의 예정론.” 한국조직신학회. 제6회. 1967.
13. 박윤선. 『개혁주의 교리학』, 서울: 영음사, 2003: 126-133.
14. 박형룡. 『교의신학』제2권(신론). 서울: 은성문화사, 1967.
15. 박희석. 『기독교 강요 연구 핸드북』,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16. 신복윤. 『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5. 223-232.
17. 안명준. 『한 눈에 보는 성경 조직신학』, 서울: 성경말씀사관학교, 2014.
18. 오영석. 『조직신학의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367.
19. 김명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20문-21문. 서울: 성약출판사, 2011.
20. 유해무. 『개혁교의학』,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187-203.
21. 이남규. “잔키우스와 스트라스부르 예정론 논쟁.” 『칼빈시대 유럽대륙의 종교개혁자들』, 부산: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2014: 240.
22. 이승구. “개혁과 정통신학에 대한 멀러 테제에 대한 교의학적 성찰.” 『성경과 신학』 제43집. 서울: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07: 72.
23. 이은선. “데오도르 베자의 예정론.” 『신학지평』제8집. 경기: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여름·가을호, 1998: 79.

24. 이종성. 『신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349-370.
25.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26. 임창복. 『개혁신학과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자원부, 2007.
27.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복음주의 신학총서 제27권. 1982: 163.
28. 조봉근. 『칼빈의 사상과 기독교론 논쟁』. 광주: 복음문화사, 2006.
29. _____. 『개혁교회 신론』. 광주: 복음문화사, 2011: 85-150.
30. _____. 『갈방과 現代神學大典』. 광주: 광신대학교 출판부, 2013.
31. _____. 『組織神學大典』. 광주: 광신대학교 출판부, 2013.
32. _____. 『韓國長老教會 神學大典』. 광주: 광신대학교 출판부, 2014.
33. 최윤배. “논의 중에 있는 칼빈의 예정론”. 『현대와 신학』제25집. 서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04: 330-331.
34. Barth, Karl. KD II/2, 3, 101, 176, 498; II/2, S. 112 ff.
35. _____. The Epistle to the Romans (1957): 347.
36. Calvin, John. Institutes 3.21.5; 3.22.1; 3.22.8.
37.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원광연 역. 『기독교 강요』. 경기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38. George, Timothy. Theology of the Reformers. Leicester: Broadman Press, 1988: 231-234.
39. Hall, David W. & Lillback, Peter A. A Theological Guide to Calvin's Institutes. 나용화의 역. 『칼빈의 기독교 강요 신학』. 서울: CLC, 2009.